

평신도가 바라본 연합감리교회

박동근 장로



“1972년

디트로이트에 감리교회

가 창립되면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연합감리교회를 섬겨왔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특히 감리교단의 특징을 생각하면 내가 감리교인이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른다.”

감리교단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평신도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교회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교단이나 개척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등록 교인들로 구성된 교인총회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결정 및 실행은 특정 대표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의 구성 방법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 즉 참여하고, 정착하고, 성장하며 봉사하는 관문의 문턱 높이를 좌우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에는 신령상의 직분으로 구별하여 구성된 평신도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길 수 있는 이가 어느 부서장으로 선출되면, 임원회 회원이 되며 의결과 실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성별, 연령, 교회 출석한 연한 및 신령상의 직분 등이 조건일 수가 없다. 실상, 연합감리교회에는 신령상의 직분제도 자체가 없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 중 한국 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령직을 두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령직분이 목회행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영적지도력 역할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 장로로 피택되어야 당회원이 되고, 당회원이 되어야 교회의 최고 행정기관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문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조직 자체만이 교회의 성장요소는 아니다. 목회자의 지도력, 설교, 교육, 세미나, 부흥회, 기도회, 사역, 정책 및 비전 설정 등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있다. 아무리 좋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

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어떤 이는

교회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목회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교회생활의 전 생애를 다 보내다시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새벽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며 모든 일을 푹 부리지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남의 잘못을 쫓아다니며 지적하는 일로 온갖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찰대장과 같은 이도 있다. 이러한 일은 대개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 같다. 자기 잣대에 모든 것을 맞추려 하니 좌충우돌하게 마련이다.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나, 회중교회와 같이 교단이 별로 간섭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에서는 목청 큰 사람이 의해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는 장정이 있는데, 그 지침을 잘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결국 우리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일과 기도 생활과 충성으로 섬기는 일에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조직이나 목회자나 교회 프로그램 자체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연합감리교회 장정과 회의진행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영적 훈련과 병행해서 평신도로서 섬기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회 내에서도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 목적이 같다는 말이다. 단지 다른 것은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 것이다. 장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회의진행법을 잘 따르면, 자연스럽게 모든 참여자의 인격과 의견을 서로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공정한 과정과 원칙에 의하여 된 일이므로 평화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나 직책은 계급도, 서열도, 권위의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며,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자유인 것처럼,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자유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분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의 Boundary를 안 후로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교회 생활이 기쁘지 모른다.

박동근 장로는 1937년생으로 부인 이경렬 권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고, 3명의 손자가 있다. GM/EDS에서 은퇴했고, 1972년 이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왔다.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원로장로로, 성가대 베이스로 헌신하고 있다.

